



# 마음까지 녹이는 '제주의 맛' 몸국과 고사리육개장

제주고사리로 만든 고사리육개장은 구수함과 감칠맛이 일품이다. (왼쪽) 윤기가 흐르는 돔베고기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가운데) 뜨끈한 국물이 마음을 녹이는 제주전통음식 몸국. (위쪽)

## 당찬 맛집을 찾아서

### <192> 제주시 일도2동 도연식당

쌀쌀한 날씨엔 담백하고 얼큰한 국물 대표메뉴 몸국·제주고사리육개장 인기 돔베고기·녹두빈대떡·제육볶음도 별미

여전히 쌀쌀하고 찬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담백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뜨끈한 국물 한 입이면 쌀쌀한 날씨로 경직됐던 몸과 마음까지 사르르 풀리게 된다.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도연식당에서는 제주의 전통음식인 고사리 육개장과 몸국 그리고 돔베고기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도연식당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가게로 김민정(57)씨가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씨는 집에 찾아온 친척과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10여년 전 식당을 운영하다 집안 문제로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했었으나, 자신만의 일을 직접 하고 싶어 다시 식당을 오픈하게 됐다고 한다.

주인장에게 제주도 향토 음식인 몸국과 돔베고기를 주문했다. 제주에서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날에 돼지를 잡는 풍습이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삶

으면서 생긴 국물에 몸을 넣고 끓인 것이 몸국이다. '몸'은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돔베고기는 갓 삶은 돼지고기 수육을 나무 도마에 얹어 덩어리째 썰어 먹는 음식으로, '돔베'는 '도마'의 제주 방언이다.

메뉴가 나오기 전 김치와 깍두기, 버섯·푹·나물무침, 배추 등의 반찬이 나왔다.

김씨는 "가게 준비를 위해 유명한 식당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반찬이 김치 깍두기 등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음식이 나오기 전 밑반찬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푸짐하게 반찬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몸국과 돔베고기가 나왔다. 돼지 뼈를 푹 고아낸 육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손가락 떠 입으로 가져갔다. 과하지 않은 담백한 맛과 얼큰한 기운이 배를 따뜻하고 안정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운맛을 원하는 손님들은 고춧가루와 잘게 잘린 고추를 기호에 맞게 넣어서 먹을 수 있다.

함께 나온 돔베고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어, 빨리 맛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였다. 돔베고기 한 점을 천원 왕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니 돼지고기 순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질기지 않고 푹신푹신한 식감과 돼지고기 기름이 잘 어우러져, 고기를 씹을 수록 그 맛이 더욱 느껴졌다. 된장에 살짝 찍어 배추와 함께 먹으니 돼지고기 기름의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신선한 야채가 잡아주고 있어 조화를 이뤘다.

제주고사리로 만든 고사리 육개장 또한 도연식

당의 대표메뉴다. 다른 지역의 매콤한 육개장과는 다르게 구수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제주 향토 음식이다.

김씨는 "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몸국과 고사리 육개장을 자주 드신다"며 "2명 이상 오시는 분들에게는 든든한 식사를 위해 고등어도 서비스로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두빈대떡과 제육볶음 등도 안주류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굴회, 도토리무침, 팽이버섯, 한치튀김 등 수시로 바뀌는 오늘의 메뉴도 별미다.

김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찾아와주시는 단골 손님들을 볼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며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욕심은 없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도연식당의 영업시간은 매일(일요일 휴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재료 손질을 위해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는다. 가격은 제주고사리육개장 8000원, 몸국 8000원, 녹두빈대떡 1만5000원, 돔베고기 3만원·중 2만원, 고등어구이 1만2000원, 제육볶음 1만8000원이다. 문의 758-4908.

김민정기자 ik012@ihalla.com



김민정 대표

## 제주바다와 문학 (44) 강덕환 시 '역새' 연작



역새가 있는 제주 야경. 강덕환 시인은 흔들려도 일어서는 섬의 역새처럼 분단조국의 금을 넘기 위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노래했다.

### "섬과 바다 사이 끝끝내 물리칠 어둠"

유배일변지 섬의 역사 속 슬픈 분단의 금 넘는 바람 "평화로 어우러져 열리리"

제주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이 섬에서 눈을 들면 마주하는 한라산처럼 바다는 제주섬의 존재를 증명한다. 제주 강덕환 시인도 바다를 본다. 그 바다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을 이어줄 물길이다.

'바다를 건너려다 문득/ 팔 벌려 가로 막는 수평선/ 한라산 첫 눈보다 먼저 달려와/ 그을린 섬을 씻어/ 쓰러져 밟히고 일어서서 잘리는/ 허연 게거품의 슬픈 노동 일지라// 들도 없이 산이 되는/ 목타는 비탈/ 바람에게 배운/ 그르럭 그르럭 솔창을 굽는 허기진 노래가/ 강이 되고, 구름이 되고/ 백성이 되고/ 평화로 어우러져/ 드디어 열리는 이 땅의 새벽!' ('역새·1' 중에서)

풀잎소리 문학동인으로 1992년 강 시인의 첫 시집 '생말타기'는 당시 출판사 이름(오름)처럼 절반을 덮은 초록 표지 위로 하얀 하늘이 떠올라있다. 발문을 쓴 오성찬 소설가는 시집에 흠어진 시편들에서 '가난하고 슬픈 농촌의 현실과 제주4·3으로 명든 가슴'을 먼저 읽었다. 그것들을 주제로 시인은 '역사를 재우고 백로의 종군하는 유배일변지' ('역새·4')인 이 섬을 내달려 '말갈기 휘날리며 만주벌판 달리는' ('생말타기') 꿈을 꾸다.

한 편의 서사가 담긴 표지는

이 시집의 주제를 드러낸다. 운동장을 빼앗긴 아이들이 교실 한켠에서 생말타기를 한다. '쟁겉이 보살보살개미꼬꼬망' 가위바위보로 편을 가르고 등을 굽으면 아이들은 어느새 독립군이 된다. '준마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식민지의 강/ 아아 드디어 시작 종이 울리는 구나/ 우리들의 현실은 슬픈 분단조국/ 그래도 가차지 쉬엄쉬엄'으로 이어지는 대목이 시인의 염원이 스며있다.

한 편의 서사가 담긴 표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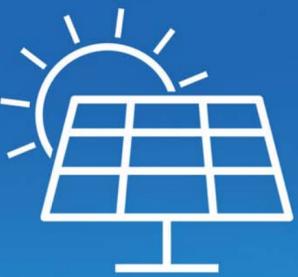
이 시집의 주제를 드러낸다. 운동장을 빼앗긴 아이들이 교실 한켠에서 생말타기를 한다. '쟁겉이 보살보살개미꼬꼬망' 가위바위보로 편을 가르고 등을 굽으면 아이들은 어느새 독립군이 된다. '준마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식민지의 강/ 아아 드디어 시작 종이 울리는 구나/ 우리들의 현실은 슬픈 분단조국/ 그래도 가차지 쉬엄쉬엄'으로 이어지는 대목이 시인의 염원이 스며있다.

'역새' 연작은 김수영의 시 '풀'처럼 섬사람들의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다. '자리젓에 콩잎써' 문체 먹어도 '흔들리진 않을 거야' ('역새·3')라는 겹겹의 다짐이 따른다.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잇겠다는 열망은 1947년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열렸던 3·1절 기념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최대 인파가 모인 그날 제주 사람들이 외친 구호 중 하나는 '3·1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였다. 4·3을 시로 붙들여온 시인은 4·3에서 통일을 봤다.

하지만 겨울은 길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무사한 것들은 대단하다/ 살아서 쉬임없이/ 꿈틀거리는 것들은 더욱 위대하다' ('겨울나기')고 노래한 이유다. '섬과 바다 사이에서' 시인은 분단의 금을 넘는 바람이 지나치게 무모한 건 아니지만 새벽은 저절로(시에는 '어차피'라고 썼다) 오지 않는다고 했다. 바다와 맞닿은 섬에서 시인은 '끝끝내 건너야 할 밤'을 떠올린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www.jeusolar.co.kr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